

# 부모의 행복, 자녀의 행복



홍은희 /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 근 가슴아픈 기사를 읽었다. 열두 살 난 어린 소녀가 너댓 살 짜리 어린이들을 꺾어 데리고 다니다 지하철 역 등에 버려 둔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는 것이다. 서른여섯에 소녀를 낳은 어머니는 17년 연상인 소녀의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했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서 소녀를 기르던 어머니는 3년 전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고, 어머니가 꾸린 새 가정에 소녀도 합류했지만 새 아버지와 함께하는 생활은 낯설기만 했다.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1년만에 소녀를 친아버지에게 돌려 보냈다. 그러나 생전 처음으로 찾은 친아버지의 가정 역시 소녀에게는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예민한 소녀의 신경은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에서 소녀는 “동생을 삼으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방을 둘러 봐도 낯선 공간이었을 뿐인 가정에서 사춘기의 소녀는 결국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범죄의 나락에 빠져든 것이다.

이 소녀만이 아니다. 많은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스트레스로 불안증세를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대변을 누지 못하는 세 살 짜리 아이, 말을 잃어버린 네 살 난 꼬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옷에 오줌을 지리는 다섯 살 난 아이….

마지코 보면 20대에 평생의 반려자를 결정한다는 것

은 무모한 일일 수도 있다. 젊음의 피만큼 사랑의 열정은 뜨거울지 몰라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온 세월이란 불과 다섯 손가락을 꼽기도 벅겁다. 그 짧은 세월의 경험만으로 그간 살아온 세월의 두 배,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온 세월만 따지면 아홉 배를 넘나드는 엄청난 긴 시간의 삶과 사랑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랑한 사이라도 어느 한 순간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이 옮겨갈 수도 있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루에 세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바로 그 증거이다. 상대방의 허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결정이었으므로 늦게나마 이를 물리려 한다거나 새로운 사랑을 택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당사자의 행복만을 추구한 것 이어서는 곤란하다. 배우 엄앵란씨는 사석에서 내게 “자녀를 낳은 이들은 이혼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엄씨의 이런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른들의 새로운 행복 추구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어른의 행복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경험을 지닌 아이는 평생동안 “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내가 행복하자고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를 평생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MPK**